

[붙임자료2]

대구광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따른 중소소매업 영향평가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유병국 교수

- 대구광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변경일 : 2023년 2월 10일
- 2022년 9월 30일의 대구광역시 중소소매업 상권 상황이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6개월후인 2023년 9월 30일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평가방식 : 중소소매업체의 (행안부 혹은 국세청) 사업체등록 변화추이를 검토

※ 중소소매업체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상권)정보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사업체 등록기준 : 행안부의 인허가 혹은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업소 기준

- 사업체 자료 분류 (예) - 중복방지

상호명	업종대분류	도로명	도로명 코드	분류 ID
○○상회	소매	대구광역시 중구 큰장로28길	271104223144	271104223144 ○○상회
△떡집	음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69길	272904241500	272904241500 △떡집
□□미용실	수리·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화로	272603146015	272603146015 □□미용실

- 1년간 사업체등록 유지 판단(예)

분류 ID	2022년 9월 30일	2023년 9월 30일	유지상태
271104223144 ○○상회	등록	등록	유지성공
272904241500 △떡집	등록	미등록	유지실패
272603146015 □□미용실	미등록	등록	신규진입

※ 유지실패의 경우 -- > 폐업, 업종변환, 상호변경 등

1. 소매업의 유지율 변화

① 기준기간(2022년 9월 30일~2023년 9월 30일) : 의무휴업일 변경후 영향기간

② 비교기간(2021년 9월 30일~2022년 9월 30일) : 의무휴업일 변경전 기간

- 기준기간의 전업종 평균유지율 : 87.1%

- > 2021년 9월 30일에 등록된 96,784개의 점포중 1년 후 84,301개 유지
- > 소매업의 경우 31,436개의 업체중 27,088개가 유지하여 유지율 86.2%

- 비교기간의 전업종 평균유지율 : 31.3%

- > 2022년 9월 30일에 등록된 107,179개의 점포중 1년 후 33,584개 유지
- > 소매업의 경우 34,198개의 업체중 6,855개가 유지하여 유지율 20.0%

상권대분류 업종	기준기간 (의무휴업일 변경전)			비교기간 (의무휴업일 변경후)			유지율 감소폭
	총업체수	유지업체수	유지율	총업체수	유지업체수	유지율	
학문/교육	6,628	5,839	0.881	7,541	1,013	0.134	0.747
소매	31,436	27,088	0.862	34,198	6,855	0.200	0.662
부동산	3,499	3093	0.884	4,414	1,067	0.242	0.642
생활서비스	17,478	15,469	0.885	20,716	7,367	0.356	0.529
스포츠	1,080	970	0.898	1,324	549	0.415	0.483
음식	34,043	29,536	0.868	35,938	15,292	0.426	0.442
관광/여가/ 오락	1,982	1,752	0.884	2,398	1,131	0.472	0.412
숙박	638	554	0.868	650	310	0.477	0.391
전체	96,784	84,301	0.871	107,179	33,584	0.313	0.558

○ 비교 결과

- 유지율은 전업종에 걸쳐 감소하였음, 기준기간의 경우 유지율이 업종별로 비슷한 수준(0.862-0.898)이었으나 비교기간의 경우 업종별 큰 차이(0.134-0.477)를 보이고 있음
- 소매업의 경우 기준기간 유지율이 0.200으로 전체 유지율(0.313)과 큰 차이를 보임
- 유지율면에서 가장 감소폭이 큰 업종은 학문/교육(0.747)이며 그다음으로 소매업(0.662)임.
- 규모면에서 가장 감소수가 많은 업종은 소매업으로 34,198개의 업체중 6,855개의 업체만이 유지되어 80%에 해당하는 27,343개의 업체가 유지되지 못했음
- 따라서 2023년 9월19일자 대구광역시 보도자료의 내용중 “소매업종 및 음식점 매출액 뚜렷한 증가”에는 위와 같이 유지되지 못한 상당수의 업체자료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2. 소매업종내의 유지율 변화

- 소매업종을 세분하여 유지실패가 많은 순으로 10개 하위 업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종합소매점과 음/식료품소매의 유지율은 소매업계의 전체 유지율(0.20)에 미달하고 있으며 유지실패의 수는 8,442개로 소매업 전체 유지실패 업체(27,343개)의 31%를 차지하고 있음
- 즉 의무휴업일 변경후 종합소매점, 음/식료품소매의 업체수는 소매업종의 평균수준보다 더 높은 비율로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소매업종(중분류)	총업체수	유지성공수	유지실패수	유지율
종합소매점	5,946	874	5,072	0.147
의복의류	5,357	1,567	3,790	0.293
음/식료품소매	4,062	692	3,370	0.170
가정/주방/인테리어	3,476	532	2,944	0.153
화장품소매	1,593	375	1,218	0.235
사진/광학/정밀기기소매	1,542	352	1,190	0.228
선물/팬시/기념품	1,270	161	1,109	0.127
가방/신발/액세서리	1,482	394	1,088	0.266
자동차/자동차용품	1,254	223	1,031	0.178
사무/문구/컴퓨터	1,040	181	859	0.174

3. 대형마트 주변 소매업종의 구성변화

- 대구광역시 소매업 사업체중 2022년 9월30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유지실패업체는 27,343개이며 신규진입 업체는 23,607로 나타남
- 대구광역시 소재 대형마트중 현재 영업중인 26개의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반경 500m, 1km이내에 위치한 소매업체 중 신규진입 혹은 유지실패한 업체를 조사하였음

소매업종	대형마트 500m 이내			대형마트 1km 이내		
	신규진입	유지실패	순증가	신규진입	유지실패	순증가
섬유·의복·신발·가방	865	647	218	6,641	4,878	1,173
가전·통신 소매	301	89	212	1,606	440	1,166
의약·화장품 소매	549	399	150	2,650	1,716	934
취미/오락관련소매	126	40	86	1,066	148	918
중고 상품 소매	45	24	21	338	271	67
애완동물·용품 소매	55	38	17	338	232	106
시계·귀금속 소매	54	41	13	418	280	138
가구 소매	57	72	-15	405	498	-93
철물·건설자재	67	96	-29	623	744	-121

소매						
자동차 부품 소매	54	147	-93	323	1,031	-708
안경·정밀기기 소매	99	222	-123	428	1,190	-762
종합 소매	582	822	-240	4,024	5,072	-1,048
음/식료품소매	307	555	-248	2,090	3,370	-1,280

- 대형마트의 주변에서 증가 혹은 감소하는 소매업종간 차이가 분명함. 업종별로 살펴보면
(증가하는 업종) 섬유·의복·신발·가방, 가전·통신, 의약·화장품, 취미/오락 등
(감소하는 업종) 음/식료품, 종합소매, 안경·정밀기기, 자동차부품 등
- 증가하는 경우, 대형마트의 판매품목과 보완관계에 있거나 내구재, 취미오락 등의 업종으로 구성됨
- 감소하는 업종은 주로 대형마트의 판매품목과 대체관계에 있는 소비재 업종으로 그중에서 음/식료품, 종합소매의 감소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음/식료품, 종합소매의 경우 대형마트, SSM 등의 입지(혹은 규제완화)에 따라 계속 타지역으로 이전되는 내몰림현상을 겪고 있음

4. 결론

○ 매출액평가의 문제점

- 대구광역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변경후 소매업의 지난 1년간 등록유지율은 20%에 불과함.
- 따라서 매출액의 변화를 고려하는 방식은 ‘등록유지실패’ 사업체를 포함한 소매업에 대한 전반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부적절하다고 보여짐

○ 매출액평가 결과의 문제점

- 의무휴업일 평일변경후 대구광역시의 소매업은 타업종에 비하여 유지실패의 기업수뿐만아니라 유지실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소매업종내에서는 종합소매점(14.7%)과 음/식료품 소매업(17%) 등이 낮은 유지율을 보이고 있음
- 보도자료의 내용처럼 “소매업종 매출액에 뚜렷한 증가가 있었다면 이렇게 높은 유지실패(폐업, 전업, 업종전환 등)율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의 문제점

- 대형마트 주변의 상권에서는 대형마트 판매품목과 연계하여 음/식료품, 종합소매 등 소비재업종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반하여, 의류, 내구재, 취미오락 등의 업종은 증가하고 있음
- 대형마트로 인한 이 같은 지역상권내 업종간 불균등성 심화는 보다 많은 업종이 혜택을 보는 ‘낙수 효과’ 보다는 업종간 ‘내몰림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현상에서 의무휴업일의 평일변경은 중소소매업의 유지실패의 증가는 물론 이러한 지역상권내 소매업종간 불균등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결과는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유통산업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붙임자료3.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6개월 통계자료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6개월 차트자료

▣ 주요 업종별·지역별 매출액 증감률 현황(전년 대비)

증감률(%)	업종	소매업	슈퍼마켓	음식점	편의점	농축수산물 전문점	대형마트
		2·4주 일·월	대구 18.0	6.9	24.0	20.9	10.8
	부산	15.9	1.3	22.9	17.6	7.9	16.6
	경북	9.5	1.6	14.6	7.3	6.4	-0.1
	경남	6.7	-0.8	12.4	2.6	3.4	13.4
전체 기간	대구	19.8	9.2	25.1	23.1	12.6	6.6
	부산	16.5	4.2	22.4	18.0	10.8	0.9
	경북	10.3	3.6	15.5	10.1	6.6	-1.4
	경남	8.3	3.0	12.9	4.9	5.1	-2.9

※ (전통시장) 2·4주 일요일 29.1%↑, 2·4주 월요일 37.8%↑, 2·4주 일·월요일 34.7%↑, 전체기간 32.3%↑

▣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소비자 만족도

구분	합계	소계	긍정답변		좋지 않은 편이다
			좋은 편이다	이도저도 아니다	
비율(%)	100(600명)	87.5(525명)	60.2(361명)	27.3(164명)	12.5(75명)

▣ 대구시 내 소비 현황

이용률(%)	연도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기간	소매업	71.6	
슈퍼마켓	82.7		82.1	82.9	0.8
음식점	72.4		71.8	73.5	1.7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6개월 효과분석



주요 업종별·지역별 매출액 증감률 현황 (전년 동기 대비)

2·4주 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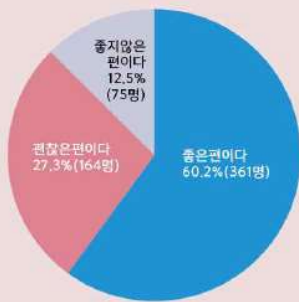


전체기간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소비자 만족도

소비자 만족도



'좋은 편이다' 이유



대구광역시 내 소비 현황

지역 내 이용현황



전년대비 증감률



파워플 대구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 붙임자료4.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과 삶 실태조사 결과

-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

1. 사회적 휴일에 역행하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 - 마트노동자 목소리로 드러내기

마트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회적 휴일에 쉼 권리가 보편화되었고, 2012년부터 월 2회 주말 의무휴업이 정착되었다. 수년간 노동자들은 일요일이란 사회적 휴일에 다 같이 쉬는 것의 다양한 효과를 체감해 왔다. 하지만 2022년, 규제 완화의 명목으로 주말 의무휴업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정면화되었고, 2023년 들어 대구광역시와 청주시에서 주말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되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서비스연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되었으나 일과 일상의 변화를 겪어야 했던 청주를 비롯한 마트노동자의 목소리로, 주말 의무휴업의 건강 영향, 의무휴업일 변화에 따른 일-삶 균형의 변화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1) 의무휴업 평일 변경 이후 주말에 일하는 횟수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

2) 의무휴업 평일 변경 이후 노동자들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

(일삶균형,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수면, 우울, 번아웃 등)

3) 의무휴업 평일 변경 이후 일터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나?

(노동강도, 동료와의 관계, 스케줄 통보 및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연차사용, 직무스트레스 등)

2. 의무휴업 평일 변경 전후 변화 살펴보기 -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의무휴업일 변경 전, 후의 청주지역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매장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대조군으로 서울 지역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매장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했다.¹⁾

① 어긋난 일주일의 시간 - 노동자 시간 통제권의 약화

1) 1차 설문조사 : 청주 의무휴업 변경 전(2023년 4월 27일 ~ 5월 9일) / 응답: 서울 94명, 경기 321명, 청주 55명. 온라인 설문 진행 // 2차 설문조사 : 청주 의무휴업 변경 후 (2023년 8월 21일 ~ 9월 3일) / 응답: 서울 67명, 경기 126명, 청주 33명. 온라인 설문 진행

특히 일요일에서 평일로 의무휴업이 변경된 청주의 경우, 주말에 사람들이 더 많이 출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말에 남들 쉴 때 쉬고 싶어 하는 상황과 부딪히면서, 관리자들이 갑자기 연락해 주말에 출근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늘었다. 노동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된 셈, 노동자들의 시간 통제권이 약화된 셈이다.

“우리가 짜서 스케줄을 올리면 거기서 최종 확정을 해요. 그런데 조정될 때도 많아요. 주말에 휴무라고 체크했는데, ‘이때는 인원이 부족하니 나와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그래서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스케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질 : 그렇게 변경되는 경우도 자주 있는 편인가요?) 매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오늘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스케줄에 대한 확정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개인적인 약속이 있거나 볼 일이 있어도 그게 변경이 갑자기 되는 경우도 있어요 (...). 평일로 변경되고 나서 조금 더 잤던 것 같아요. 주말로 인원을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참 웃긴 애긴데 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나와주시면 다음 주에 주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A)

② 어긋난 일주일의 시간 - 일가정 균형의 악화

표 7 일 가정 균형 - 청주

항목	청주	
	변경 전	변경 후
직장생활과 가족(개인) 생활이 충돌하여 갈등이 있다 - 그런편/매우 그렇다	31 (56%)	20 (60%)
직장생활 때문에 가족(개인)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다 - 그런편/매우 그렇다	36 (65%)	22 (66%)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개인) 생활까지 연결된다 - 그런편/매우 그렇다	40 (71%)	26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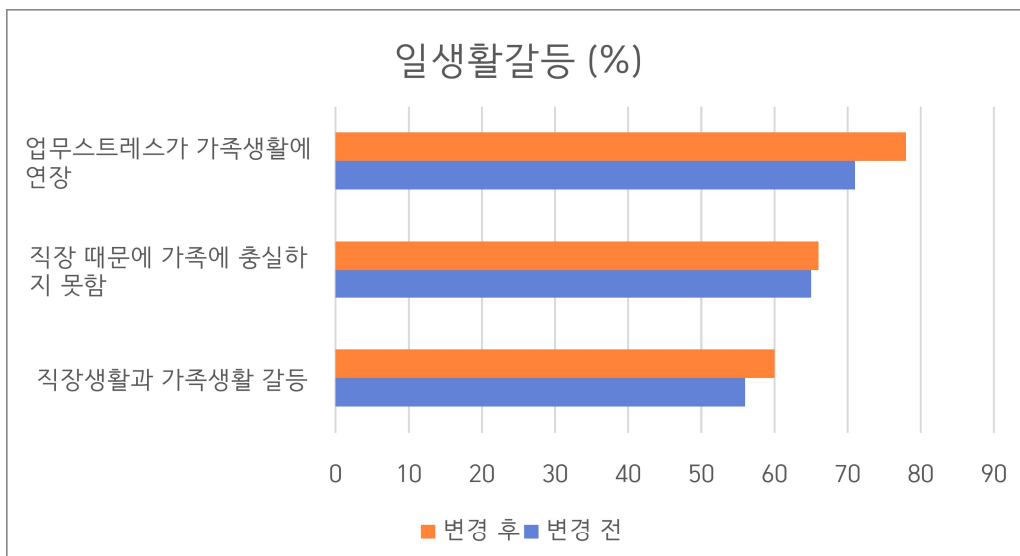


그림 5 의무휴업일 변경 전후 일생활 갈등(%)

의무 휴업일 변경 후에 청주에서 모든 항목에서 일 가정 균형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직장생활 때문에 가족(개인)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다”,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개인) 생활까지 연결된다”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직장생활과 가족(개인)생활이 충돌하여 갈등이 있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응답한 인원은 변경 전이 56%, 변경 후가 60%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직장생활 때문에 가족(개인)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응답한 인원은 변경 전이 65%, 변경 후가 66%였다.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개인)생활까지 연결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응답한 인원은 변경 전이 71%, 변경 후가 78%로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8 워라벨 만족도 - 청주

항목	청주	
	변경 전	변경 후
불만족	39 (70%)	31 (96%)
만족	16 (29%)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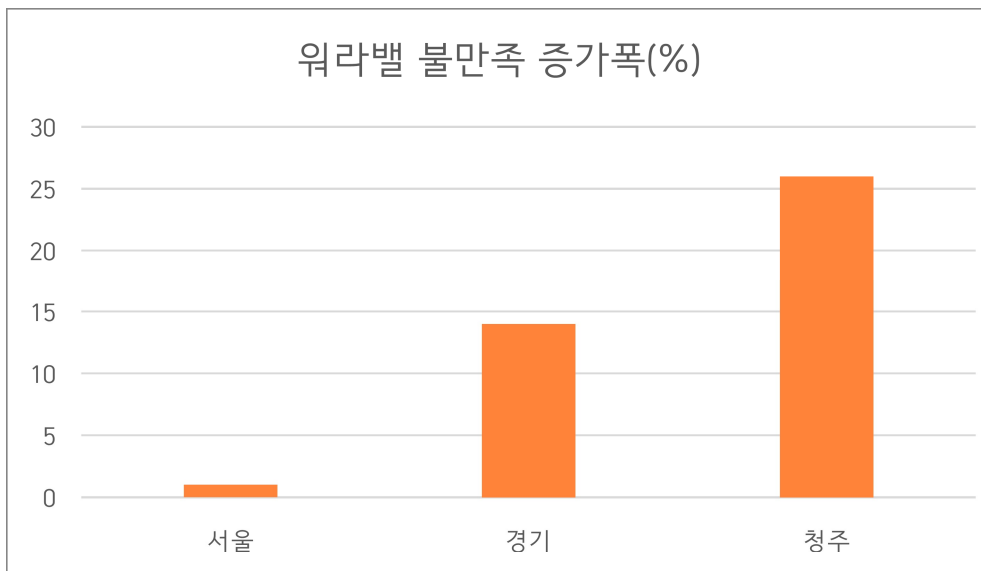


그림 6 의무휴업일 변경 후 워라벨 불만족 증가폭(%)

의무휴업일 변경 후 청주에서 워라벨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워라벨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을 응답한 인원은 변경 전이 70%, 변경 후가 96%로 비율이 증가하였다. 면접에서도 어긋난 일주일의 루틴으로 인해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그 원인이 나로 인한 것이며 내가 먼저 연락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트노동자한테는 두 번 의무적인 휴일이 굉장한 위안이고 정신적인 충전의 시간이고 에너지를 받는 시간, 또 가족과의 정서적인 나눔을 하는 시간이예요. 남들이 다 쉴 때 같이 쉰다는 그런 안정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컸거든요. 그런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지거나 더 적어지기 때문

에 스트레스가 엄청 가중되고 있어요 (중략) 나는 혼자 딸랑 쉬니까 왠지 고립된 느낌. 가족한테도 고립된 느낌, 그리고 같이 못 쉬는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A)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일요일 정기휴무가 있었잖아요. 다른 가족들은 전부 다 주말에 쉬고 마트는 그렇지 않으니깐. ‘야 이날 여행 가자.’ 언니들이랑 아니면 가족들이랑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너 이날 쉬니? 너 언제 쉬니?’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 스케줄에 맞춰야 하잖아요. 언제 쉬는지 다 물어봐야 하고, 내가 먼저 연락해서 ‘나 언제 언제 쉰다.’ 라고 얘기해야 하고 (B)

의무휴업 변경 이후 마트노동자들은 “요일을 모르고 살게” (B)되었다. “주말 평일 상관없이 출근하나 보다, 쉬는가 보다” (B) 하는 마트노동자들의 일주일의 시간은, 가족들과 어긋났다.

③ 어긋난 일주일의 시간 - 직무스트레스 회복 경험의 악화

표 9 직무스트레스 유발 요인

항목	서울 (%)		경기 (%)		청주 (%)	
	1차	2차	1차	2차	변경 전	변경 후
결정권한 - 전혀아님/ 그렇지 않은 편	81.5	83	75	75	76.4	72.7
업무량, 작업스케줄 스스로 조절 가능 - 전혀아님/ 그렇지 않은 편	74.4	83.6	70.4	71.4	76	81
직장 존중 신임 - 전혀아님/ 그렇지 않은 편	76	77	68	78	76	69
사정이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하게 된다 - 전혀아님/ 그렇지 않은 편	81	83	73	81	70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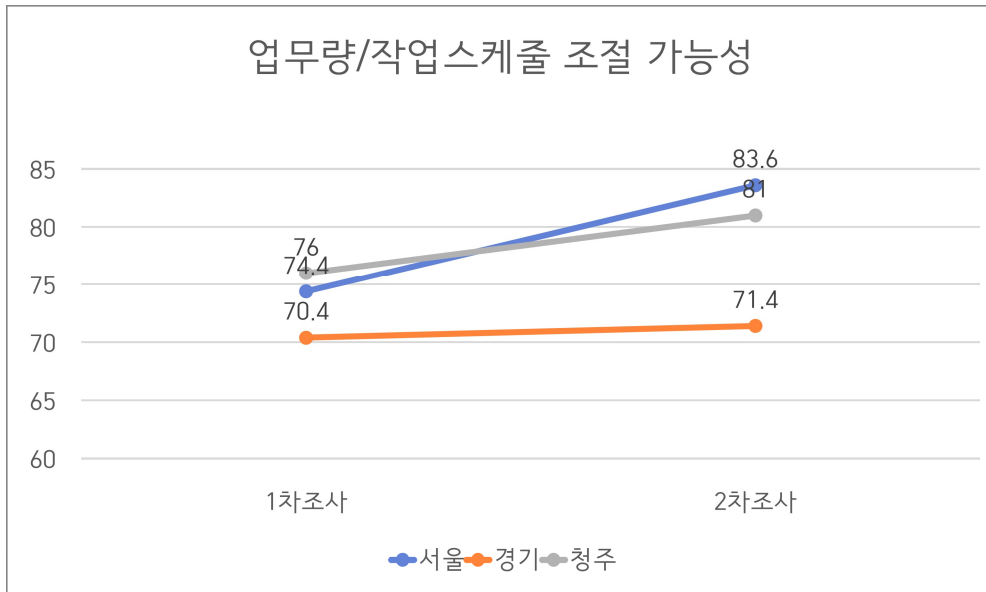


그림 7 업무량/작업스케줄 조절가능성 낮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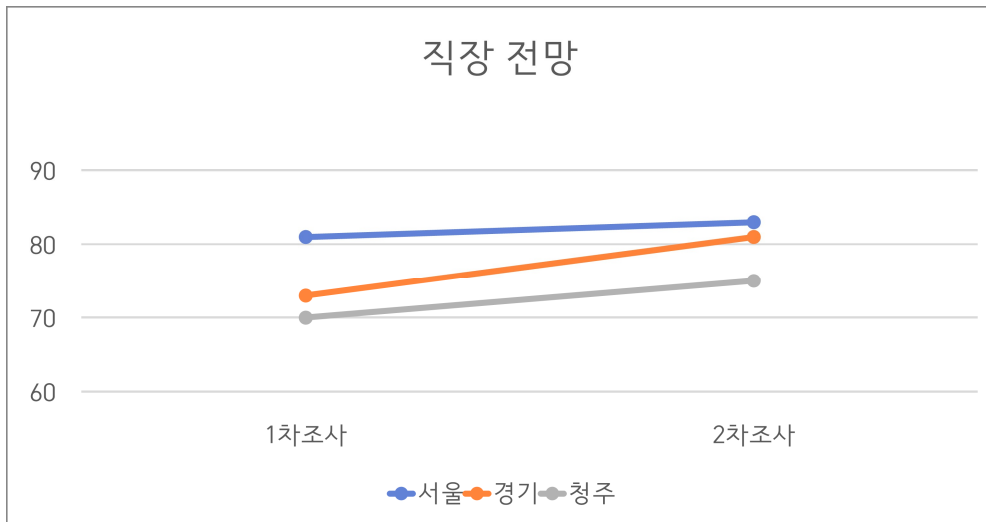


그림 8 직장전망 나쁨 비율(%)

직무스트레스의 유발 요인 항목에서는 일에 대한 결정권한, 업무량 및 작업스케줄의 조절 가능 여부, 직장에서의 존중 및 신임 여부, 앞으로의 호전 여부의 4가지 항목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의무휴업일 변경 전후 청주지역에서 예상과는 달리 결정권한이나 직장에서의 존중 및 신임 여부는 더 악화하지는 않았다. 노동강도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1차 조사 기간이 이미 청주에서 의무휴업일 변경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시점으로 이미 결정권한이나 직장에서의 존중 및 신임 여부와 관련한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나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업무량 및 작업스케줄의 조절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의 직장 전망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사정이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하게 된다.” 항목 또한 “전혀 아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변경 전 70%, 변경 후 75%로 증가하였다.

표 10 직무스트레스 회복 경험 - 청주

항목	청주	
	변경 전	변경 후
총 점수 평균	60	50.31
표준편차	53	1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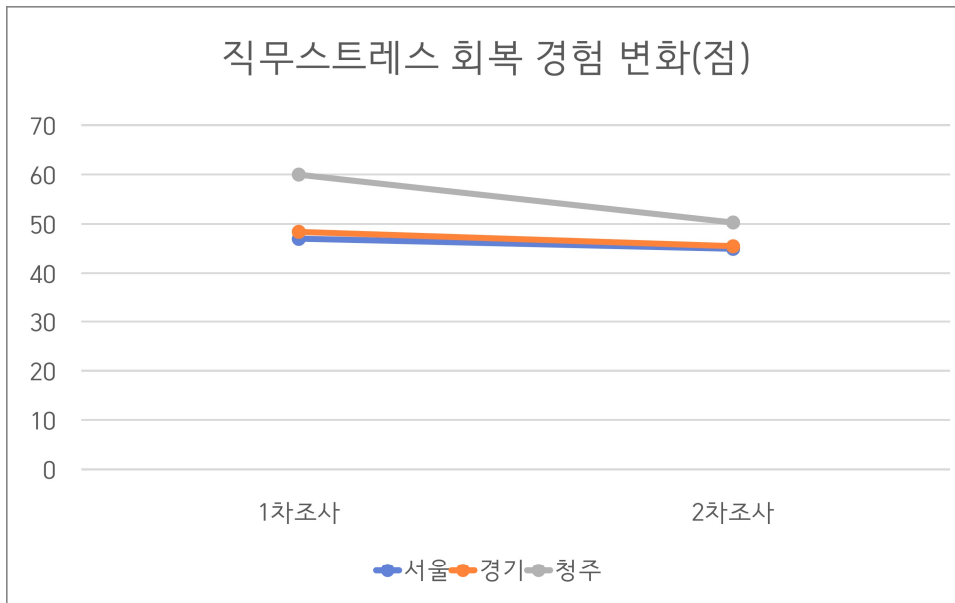


그림 9 의무휴업일 변경 전후 직무스트레스 회복경험 변화 (점)

직무스트레스 자체는 나빠진 것과 좋아진 것이 섞여 있었음에도, 직무스트레스 회복 경험은 의무휴업일 변경 후에 청주에서 뚜렷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 회복 경험이란 휴식 후, 업무 스트레스를 받기 이전의 상태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회복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로부터 심리적 분리경험, 휴식경험, 자기성취경험, 여가 중 통제 경험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청주지역에서 의무휴업일 변경 전에 비해 변경 후에서 총점이 약 10점 감소하였으며, 이는 서울 경기에서 동일 기간 감소한 점수(서울 약 2점, 경기 약 3점 감소) 큰 감소폭이다. 의무휴업일 변경 후 청주지역에서 업무 후 휴식 시간의 회복력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말에 하루 쉬는 경우가 주중에 이틀 쉴 때보다 소진은 낮고 활력은 높아진다는 연구²⁾나, 일요일 근무가 회복 경험을 떨어뜨린다는 기존 연구³⁾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이 직접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높이기도 하지만, 같은 휴식 시간을 가졌을 때 직무스트레스로부터 회복되는 정도를 떨어뜨려 노동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업무생산성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2) Drach-Zahavy, Marzuq. J Adv Nurs. 2013 Mar;69(3):578-89

3) Vieten, Woehrmann, Michel.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2022;95(1):275-292

④ 청주지역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마트 의무휴업 변경 전후 일삶 변화

표 11 의무 휴업일 변경 전후 청주 지역 설문

항목	줄었다	차이없음	늘었다
신체적 피로	0 (0%)	4 (12.1%)	28 (84.8%)
정신적 피로	0 (0%)	6 (18.2%)	26 (78.8%)
일터에서의 휴식 시간	15 (45.5%)	16 (48.5%)	1 (3.0%)
평일(월-금요일) 연차 사용	3 (9.1%)	20 (60.6%)	8 (24.2%)
주말(토요일, 일요일) 연차 사용	18 (54.5%)	10 (30.3%)	4 (12.1%)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	20 (60.6%)	12 (36.4%)	0 (0%)
가정생활에 참여하거나 기여하는 정도	23 (69.7%)	6 (18.2%)	3 (9.1%)
사회생활에 참여하거나 기여하는 정도	20 (60.6%)	12 (36.4%)	0 (0%)

표 12 마트 계속 근무 의향 여부

마트에서 계속 근무할 의향	청주	
	변경 전	변경 후
예	46 (69.4)	27 (69.5)
아니오	12 (20.6)	7 (20.5)

마트에 계속 근무할 의향은 변경 전과 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무휴업일 변경 이후 퇴사자가 상당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1차 설문조사 후 2차 설문조사 진행 당시, 설문 응답을 요청하기 위해 연구진이 연락했을 때도, 그 사이에 마트를 그만두었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3.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 당장 중단해야

이번 연구를 통해 청주지역에서 일요일에서 평일로 의무휴업일이 변화한 전후 노동자 건강과 생활시간의 변화를, 의무휴업일 변화가 없는 지역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의무휴업일이 변함없이 일요일인 서울, 변함없이 평일과 주말이 혼재된 경기,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뀐 청주에서 동일한 대상자가 2번 설문에 참여하여, 객관적으로 변화를 살펴봤다는 의의가 있다.

조사 결과 청주에서 주말 근무 횟수가 증가했고, 의무휴업일 변경 전보다 워라벨 불만족 점수가 크게 증가했다. 불면이나 우울 등의 결과는 더 나빠지지 않았지만,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모든 문항에서, 서울에 비해 경기와 청주에서 악화 경향이 뚜렷했다. 이는 직무스트레스 회복 점수가 뚜렷하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말에 쉬지 못하는 경우 직무스트레스로부터 회복이 덜하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

한편, 노동강도, 불면, 우울, 그 외 일부 직무스트레스 항목에서 변경 후에 더 호전된 항목이 존재하나, 설문 주관식 응답과 면접에서는 이와 상반된 결과가 보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차 응답을 수집할 때 일부 기존 노동자들이 퇴사하였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 설문 응답자들은 ‘의무휴업일

변경 이후에도 회사에 살아남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의무휴업일 변경에 불만이 매우 크거나, 이로 인한 어려움이 매우 컸던 노동자들은 이미 퇴사하거나 이직했을 가능성이 있다. 남아 있는 노동자들은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불만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노동자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효과를 '생존자 효과' 라고 하는데,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의무휴업일 변경 후 더 나빠진 지표들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불면, 우울 등 항목에서는 변화 후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아 아직 정신건강 등에서 뚜렷한 악화가 확인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청주지역 응답자들은 의무휴업일 변경 후,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늘고 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참여 할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면접조사에서도 무엇보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사회적인 휴일을 향유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데 대한 아쉬움이 뚜렷했다. 또, 의무휴업일 변경 과정에서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회사와 지자체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이직 의도가 있었고, 실제 이직으로 이어진 경우도 확인되었다.

의무휴업일 변경 지역으로 주된 연구 대상이었던 청주지역에서 설문 참여가 많지 않아서 통계적인 검정 이 다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실제 건강 상태 악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회사와 지자체,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조사와 개입이 필요하다. 의무휴업일 변경의 중요한 주체인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확대 추세를 저지하고 이미 평일로 바뀐 곳도 일요일로 변경 및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참고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과 삶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전문

서비스연맹 홈페이지(<http://service.nodong.org>) > 자료 > 자료실(자료no.742)

http://service.nodong.org/xe/index.php?mid=kftu_05_02&category=35243&document_sri=597178

※ 붙임자료5.

서울시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으로 인한 재래시장·소상공인 피해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휴식권·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통재벌 대기업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와 언론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가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몇몇 연구결과와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유통점들의 매출하락,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부각시키며 의무휴업제도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반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시행으로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증대했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있는만큼 의무휴업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임.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진행한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에 따른 효과성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인근의 소상공인 사업체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무휴업 당일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3%, 평균 증가 폭은 10.8%에 이른다고 응답했으며, 54.0%의 업체가 고객이 증가했다고 응답함. 2014년 서울연구원이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실태’ 자료에서도 의무휴업일에 소비자의 47.5%가 대형마트 대신 동네슈퍼(49.2%), 전통시장(19.6%), 동네소매점(16.5%) 등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고 응답했음.

대형유통점들이 고문과 이사로 대거 참여 중인 한국유통학회가 2019년 ‘대형마트, SSM규제 정책의 효과 분석’에서 2013년 18.1%였던 전통시장 소비 증가율이 2016년 -3.3%로 감소했다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지만 같은 기간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29.9%에서 -6.4%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 결과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발달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매출이 줄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의무휴업제도 때문인지는 알기 어려움. 의무휴업규제 등이 전통시장의 소비 증가로 직결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의무휴업규제가 없었다면 전통시장의 매출하락이 더욱 큰 폭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게다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몰락은 단순히 해당 중소상인들만의 생존권 문제에 그치지 않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상품을 납품하는 다수의 대리점, 해당 대리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브랜드 제조업체 등 다수의 중소상공인은 물론 그곳에 소속된 노동자들까지 모두 일자리를 잃으면서 지역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옴.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대형유통점과 그곳에 납품하는 대형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독과점 되면서 상품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